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 태도 분석

Dance Attitude Differences between Gender, Majors, and Grades

최윤선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Youn-Sun Choi(Julie5852@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의 무용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공별, 남녀별, 학년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대학에 재학하는 전공자 남녀 각각 126명, 357명을 대상으로 Jadranka et al.(2014)가 고안한 무용 태도 질문지법을 이용해 정의영역, 인지 영역, 행동 영역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여간 무용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 정의적 태도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p<.05), 전공 간 분석결과는 실용 무용 전공자들이 발레나 한국 무용 전공자들보다 무용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 보다 긍정적이었다(p<.05). 학년별 무용 태도는 저 학년인 1학년이 고 학년인 4 학년보다 정의적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05).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보다 많은 조사 대상자와 남녀, 전공, 학년별 균등한 조사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선정 대상자 또한 수도권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에 걸쳐 선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중심어 : 무용전공 대학생 | 무용 태도 | 정의적 태도 | 인지적 태도 | 행동적 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ance attitude differences between gender, majors, and grades. Attitudes-towards-dance inventory(Jadranka et al., 2004) which covered affective, cognitive, and action aspects of attitudes, as well as to reflect, in a similar number of item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dance was used to investigate dance attitude for 483 dancers who are collegian. Male students were more positive attitude in the affective area among dance attitudes than female students(p<.05). Dancers who major practical dances revealed more positive attitude in the affective area than dancers majoring ballet and Korean traditional dance(p<.05). In addition, freshmen have a more positive dance attitude in the affective area compared with seniors. It was suggested that more subjects should be studied from considering major, local university as future study.

■ keyword: | Dance Major Collegian | Dance Attitude | Affective | Cognitive | Action Attitude |

I. 서론

무용은 예술과 신체 활동이 결합된 관습적인 미적 활동으로[1] 음악에 따라 행하는 특별한 템포의 신체 움직임과 일련의 리듬 스텝으로 구성된다. 무용은 또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 교육의 한 분야로 침묵, 음악, 리듬을 이용해 삶을 표현하는 신

한 분야로 침묵, 음악, 리듬을 이용해 삶을 표현하는 신

접수일자 : 2015년 05월 14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29일

교신저자 : 최윤선, e-mail : Julie5852@naver.com

체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신체 활동이다[2].

무용의 장르 분류는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도의 기술과 경험의 요구 여부에 따라 전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오래 동안의 기술 축적과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장르로 대표적인 것이 발레, 한국 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그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보다 대중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교춤, 모던댄스, 재즈 등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춤들이 포함된다[3].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용의 가치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태도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달리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태나 자세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회학,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 개념의 하나로 쓰인다. 근본적으로는 학습된 결과로서 개인 행위의 선택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주는 내재적이며 심리적 준비 상태 혹은 경향성이다. 즉 개인이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 사물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과 감정 내지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 입각하여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 상태를 말한다[4-6].

태도는 사람과 상황 혹은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성이라고 보고 있다[7]. 이처럼 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 방향에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일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정의적 특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특정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특정 감정 간의 결합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일단 학습되고 나면 대상이 존재할 때 마다 같은 감정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경험하게 된다. 즉 태도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고, 특정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반응의 경향이며, 비교적 계속적이고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다 심층에 속하는 행동 경향이나 그 구성 요소별로 구분되며, 인지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7].

이와 같이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인지적, 정

의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7]. 인지적 요소는 신념이나 생각 또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적 요소는 좋다, 싫다 등의 감정적인 반응, 선호하는 정도와 같은 동정적인 신경 활동과 관련된다. 행동적 요인은 동작의 의도나 미래 행동에 대한 구두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행동적인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3]. 태도는 이 세 가지 하위 요소가 내적으로 조직화되어 변화와 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상, 신념, 지식 등이 서로 어우러진다. 어느 하나의 요소가 변화되게 되면 이 변화는 다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도는 대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형성되며, 태도 대상에 대한 인지 내용들이 다른 태도 대상들에 대한 인지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8].

만일 이들 요인들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한 가지가 특히 우세하거나 균형성이 결핍되면 태도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성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도는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고정적 지속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6][7].

따라서 한번 태도가 형성되면 태도 변화에 입각한 동기 유발이나 기능적인 것이 설정되지 않는 한 변경하기 어렵다[6][7]. 또한 태도는 행위를 제한한다. 개인은 그들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지만, 행동에 따라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특별한 상황에 의해 부과된 개인의 행동은 이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용 활동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이런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공 학생에 대한 무용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향후 사회에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재학 중에 역할을 하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 확실한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용 태도와 무용에 대한 콘텐츠 홍보가 긍정적이면 그들이 교육자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안무가로서의 역할

을 불문하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개인들의 긍정적인 댄스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

무용 태도란 무용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9]. 무용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무용에 대한 인식을 관찰해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무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정보는 왜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를 파악해 학습 등에 피드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2].

그동안 무용 태도에 관한 연구는 무용 참여 혹은 무용과 연관된 매개 변수를 통한 학습 태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특정 집단의 무용태도를 모색한 연구로 크게 대별 된다. 전자에 포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교사의 자질과 학생의 무용 학습태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10], 무용참여가 대학생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3], 여자중고등학생의 무용수업 참가 형태에 따른 무용 인식도 및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 대학 무용 전공자의 무용 선행 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와 자기실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11], 창작무용의 협동학습과 경쟁학습이 학습태도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12], 고등학생의 무용교육에 대한 태도와 무용참여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13]. 또한 교양무용경험, 무용태도, 무용개입정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교양 무용경험과 무용태도, 무용개입정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14], 무용수업 시간에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수업 유형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하고자한 연구[15], 무용과 여자대학생의 학년 및 전공에 따라 학습태도를 검증한 연구[16], 대학무용전공자의 신체자신감과 학습태도 및 전공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 등이 있다[8]. 그 밖에 예술고등학교 창작 무용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자기 효능감을 분석한 연구[4], 무용 전공 대학생의 전문화 수준에 따른 무용태도 및 진로 성숙도를 분석한 연구[17], 수업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접촉 유형이 학습 태도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18], 대학 교양 무용 참여 학생들의 참여동기와 수업만족, 학습 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19], 무용 수업 참여

에 따른 여중생의 무용태도와 또래 관계 및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20]본 연구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특정인들의 무용 자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21]은 무용전공 학생들의 전문화 수준을 활동경력(참여, 공연), 무용애착도, 무용수행 수준, 전공 관련 학업성취수준 등으로 나누어 이 변인들이 학생들에 무용 태도 및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일부 변인들이 무용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22]는 학교 수준별, 종교별, 무용별, 성장지별 등 다양한 요인을 설정해 무용에 관한 태도 조사를 분석해 결과를 제시 했으며, [23]은 무용과 학생들의 전문화 수준이 무용태도 및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무용교육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지니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긍정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고 피교육자의 인식과 정보를 강조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밖에 [2]는 남녀별 무용 태도 연구에서 일반 학생들을 위한 무용 수업은 남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해 대학에서 무용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무용과 관련한 태도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에 따라 무용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무용 자체에 대한 태도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용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무용전공자들에 대한 무용 태도 분석은 한정된 실정이다. 또한 무용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 문항도 일부 무용 장르에 대한 국한된 내용으로 무용 발전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반영치 못한 상태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된 무용전공자들의 무용태도에 관한 결과를 시대적으로 부각되는 실용 무용 영역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의 주체자인 전공자들의 다양한 무용 장르에 대한 무용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관찰했다. 첫째, 성별 무용 태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무용 전공별 무용태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년별 무용태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인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무용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유층집락무선표집(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방법을 통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수집된 자료중 자료 분석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7명을 제외한 총 48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전공자별, 학년별, 남녀별 동등한 대상자 선정은 현실상 고려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남녀별, 전공별, 학년별 구성

구분		전공				계
성별	학년	한국 무용	현대 무용	발레	실용 무용	
남	1	5	11	6	39	61
	2	6	8	4	14	32
	3	5	6	3	5	19
	4	5	5	2	2	14
	소계	21	30	15	60	126
여	1	21	22	21	68	142
	2	21	20	21	21	83
	3	22	25	21	8	76
	4	20	21	20	5	66
	소계	84	88	83	102	357
계		105	118	98	162	483

2. 측정 도구

1) 무용태도 검사도구

무용전공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가 고안한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했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질문지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일부 문항 내용은 번안했다. 이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질문지 내용은 긍정적 문항뿐만 아니라, 부정적 질문 문항이 포함되었다.

질문지 내용은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통, 실용, 사교, 포크 등 폭넓은 무용 장르의 시각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또한 파트너가 필요한 춤의 형태든 파트너가 불필요한 춤의 형태든 무용의 개념이 가능한 한 확장된 의미가 포함되

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다. 무용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항목은 정서(affective), 인지(cognitive), 행동(action aspects of attitudes)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는 .937이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질문지 내용

구성 영역	문항 수	질문 내용
인지	6	· 춤추는 것을 누군가 볼 때 당황스럽다 · 춤을 출 때 행복하다. · 춤출 때 바보처럼 느껴진다. · 모임에서 춤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 춤출 때 좋은 느낌을 받는다. · 생소한 춤을 출 땐 불안하다
정의	6	· 춤추기를 좋아 한다. · 보기 좋은 춤을 추는 커플을 볼 때 즐겁다. ·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 짝을 이루어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 춤추는 것을 싫어 한다. · 춤 공연 관람을 좋아 한다
행동	8	· 친구들과 클럽과 같은 장소를 가면 춤보다 수다로 시간을 보낸다. · 성이 다른 파트너와 춤을 출 때 잘 추려고 노력한다. · 춤추는 것을 피하고 싶다. · 춤출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춤을 춘다. · 춤 출때 파트너를 이끄는 것은 어렵다. · 여유를 가질 때면 언제나 춤을 춘다. · 음악을 들을 때면 언제나 춤을 춘다. · 춤추는 장소는 가고 싶지 않다.

2) 조사 절차

본 연구는 경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무용학과(학점은행 대학 포함)에 재학 중은 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했다. 질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들의 지도 교수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해 질문지에 대한 성실한 답이 이루어지도록 요청을 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자료 분석

무용 태도 평가는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과 이들이 모두 포함된 총합별로 기술 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얻었다. 남·여별 무용 태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t검증이 활용되었다. 또한 전공별, 학년별 무용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검증을 활용했으며, 차이 난 항목에 대해 Scheffe 검증을 이용해 사후 검증을 실시했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했다.

III. 결과

남녀별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 점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남녀별 전체적인 태도 점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 정의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5$). 반면에 인지 영역과 행동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영역별 남녀 간 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유의성 검증

구분	정의	인지	행동	전체
남	3.67 (0.84)	3.14 (1.05)	3.06 (0.96)	3.29 (0.95)
여	3.48 (0.86)	3.09 (0.90)	2.91 (0.92)	3.15 (0.89)
t(p)	1.68*	0.392	1.17	1.16

*: $p<.05$

전공별 무용에 대한 태도 점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전공 간에 태도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태도의 하위 구성 요소인 정의 영역에서는 전공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p<.05$). 사후 검증 결과 특별히 실용 무용 전공자들이 발레나 한국 무용 전공자들보다 무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05$).

표 4. 영역별 전공 간 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유의성 검증

구분	정의	인지	행동	전체
한국	3.24 (0.89)	2.95 (0.87)	2.90 (0.87)	3.03 (0.87)
현대	3.48 (0.82)	3.08 (0.86)	2.77 (0.83)	3.11 (0.83)
발레	3.20 (0.88)	2.93 (0.91)	2.88 (0.96)	3.00 (0.91)
실용	3.67 (0.77)	3.19 (0.95)	3.05 (0.89)	3.30 (0.87)
F-value	2.90*	1.92	2.08	2.20
Scheffe	실용>발레 실용>한국	-	-	-

학년별 무용 태도에 대한 점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전공별 무용 태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의, 인지, 행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에서는 학년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정의영역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학년 간 차이를 본 사후 검증 결과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별다른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학년인 1학년이 고학년인 4학년보다 무용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05$).

표 5. 영역별 학년 간 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유의성 검증

구분	정의	인지	행동	전체
1학년	3.68 (0.77)	3.20 (0.98)	3.03 (0.91)	3.30 (0.88)
2학년	3.35 (0.87)	2.99 (0.84)	2.88 (0.87)	3.07 (0.86)
3학년	3.53 (0.99)	3.08(1.01)	2.94 (1.03)	3.18 (1.01)
4학년	3.30 (0.73)	2.94(0.85)	2.84 (0.86)	3.03 (0.81)
F-value	2.64*	1.90	1.41	2.02
Shaffe(value)	1 > 4*	-	-	-

IV. 논의

무용 태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무용 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무용 태도에 영향을 주는

무용 활동 경험은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용동작의 이미지, 연습과정, 작품의 내용, 무용단체, 학교 및 학원의 인적 구성, 활동 형태, 개인의 가치관, 자아개념, 숙련도, 성, 무용의 장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 따라서 무용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용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무용, 발레, 현대 무용, 실용 무용 전공자들의 춤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무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남녀별, 전공별, 학년별 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구분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남녀별 무용 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태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인 정의 영역에서는 남성 전공자가 여성 전공자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용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신체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남성들은 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거나, 접한다 해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무용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 이런 환경적 배경에 의해 많은 일반 남성들이 무용 태도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시각 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 남성 무용 전공자들이 여성 무용 전공자들보다 무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보다 긍정적인 것은 무용에 대해 그동안 인식해온 일반 남성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의 롤 모델로서 직·간접적으로 무용의 사회적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1], 이들이 가르치는 피교육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무용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는데 남성 무용지도자는 여성 무용지도자보다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 남성들의 무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남성 무용전공자들이 여성 무용 전공자들보다 무용에 대한 호감도가 큰 것은 무용에 대한 시대적 변화 양상에 따른 결과라 보여 진다. 그동안 전통적

으로 추구해왔던 발레나 한국무용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발전해 온 방송 댄스, 스트리트 댄스와 같은 실용 무용 전공자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무용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남성 무용 전공자가 여성 무용 전공자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 된다. [22]은 무용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에서 무용전공자들의 성별 무용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 이런 차이는 아마 질문지 항목의 상이, 무용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무용 인식과 무용 선호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사료된다.

전공별 무용 태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인 태도와 인지, 행동영역에서는 전공 간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 영역에서 실용 무용 전공자들은 발레나 한국 무용 전공자들보다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결과를 나타냈다. 무용 태도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서 형성된 무용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때[22],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무용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 간 정의적 영역에서 태도의 차이는 실용 무용의 사회적 인식이 전공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그동안 무용은 특정한 집단이 소유한 전유물로 간주되었으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K-팝과 같은 방송 무용과 팝핀, 비보이, 힙합, 왁킹, 락킹, 하우스와 같은 스트리트 무용과 같은 다양한 장르가 각광을 받으면서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의 산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현대무용은 발레와 한국 무용 보다 상대적으로 개성이 강조되고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정의적 태도 영역에서 실용 무용전공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학년별 무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본 연구 결과는 전공별 결과와 같이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인 1학년 전공자가 고학년인 4학년 전공자보다 정의적 영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무용전공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무

용 숙련도에 따른 무용 태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22]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무용 자체의 태도 연구는 아니지만, 무용 태도에 영향을 주는 무용 학습 태도 연구에서 고 학년이 저 학년보다 무용 학습 태도가 높다고 한 [16]의 보고와도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판단하는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졸업을 앞둔 고 학년에서 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졸업 후 진로 고민에서 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간주된다.

고 학년들은 그들이 대학에서 연마한 무용 기능과 지식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전문성 배양에 맘 흘려 준비를 수행해 왔지만 현실의 좁은 무용관련 취업 장벽에 실망해 무용 태도와 무용에 대한 가치관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무용 지도자로 나갈 고 학년들의 무용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학생들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무용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 학년 무용 전공자들의 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졸업 후 무용관련 직업에 종사할 경우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7]. 무용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는 무용 활동의 참가와 흥미, 관심, 학습, 지도자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용지도자들은 개인들의 무용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1], 장차 무용지도자로 나설 무용전공자들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용이 갖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무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직업 경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존의 발레, 현대, 한국 무용의 프로그램에 생활 무용과 관련된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가미해 무용 관련 진로를 개척하고, 취업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전공자들의 무용 태도의 고취를 도모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2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공별, 남녀별, 학년별 대학 무용전공자들

의 전반적인 무용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2]가 고안한 질문지법을 이용해 정의영역, 인지 영역, 행동 영역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본 연구는 경인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무용학과에 재학하는 남 126명, 여자 357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 해 조사했으며, 조사된 내용은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검증을 이용해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남녀별 전체적인 태도 점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 정의적 태도 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 < .05$).

둘째, 전공 간에 태도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태도의 하위 구성 요소인 정의 영역에서 전공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사후 검정 결과 특별히 실용 무용 전공자들이 발레나 한국 무용 전공자들보다 무용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를 구성하는 정의, 인지, 행동 요소를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에서 학년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의적 태도 영역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학년 간 차이를 보기 위한 사후 검증 결과 저 학년인 1 학년이 고 학년인 4 학년보다 정의적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들로 선정된 대학 재학생들의 구성 비율은 무용학과의 특성상 남자가 여자보다 소수이고, 대학의 실용 무용 전공의 개설이 다상대적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 늦은 관계로 저 학년 재학 비율이 높은 현실로 인해 전공별 균형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지역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향후 이와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사 대상자와 남녀, 전공별, 학년별 균등한 조사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과 무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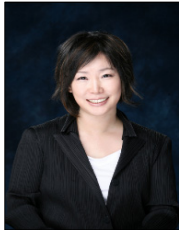
- [1] J. Vlastic, G. Oreb, and Katovic, "Dance Attitude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Ovidius University Annals," Serie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cience, Movement and Health, Vol.12, No.2, pp.417-421, 2014.
- [2] V. Jadranka, O. Goran, and B. Ksennija, "Metric Properties of Attitudes-towards-dance Inventory," Acta Kinesiolosica, Vol.8, No.2, pp.20-24, 2012.
- [3] 최윤선, "무용참여가 대학생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51-258, 1999.
- [4] 강화경, *예술고등학교 창작 무용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자기 효능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8.
- [5] 양경남, *학습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스트레스 경감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93.
- [6] 김종희, *5분 명상이 초등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1.
- [7] 장윤정, *무용과 대학생의 학습 동기, 학습 태도, 진로자기 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인과모형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6.
- [8] 백정희, *대학무용전공자의 신체 자신감과 학습태도 및 전공만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7.
- [9] 채희경, *여자중고등학생의 무용수업 참가 형태에 따른 무용 인식도 및 태도의 관계*, 국민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1.
- [10] 박지경, *무용교사의 자질과 학생의 무용태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7.
- [11] 이예순, 김종필, "대학 무용전공자의 무용 선행 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와 자기실현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3-162, 2003.
- [12] 전향원, *창작무용의 협동학습과 경쟁학습이 학습태도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4.
- [13] 주진희, *고등학생의 무용교육에 대한 태도와 무용참여의 관계*,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 논문, 2005.
- [14] 김혜정, 조진희, "대학교양무용경험이 무용태도와 무용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4호, pp.339-348, 2006.
- [15] 진정우, 박지아, "무용교사의 수업유형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pp.439-457, 2006.
- [16] 문영철, "무용과 여대생의 학년 및 전공에 따른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차이 검증",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제17권, 제4호, pp.229-243, 2006.
- [17] 이지혜, 김선정,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문화 수준에 따른무용태도 및 진로 성숙도", 대한무용학회지, 제58권, pp.213-228, 2009.
- [18] 박영호, "무용지도자의 접촉 유형과 학습 태도,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4호, pp.311-322, 2013.
- [19] 이화석, "대학 교양무용 참여동기와 수업 만족 및 학습 태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47-1163, 2014.
- [20] 오진숙, 강은주, "무용 수업 참여에 따른 여중생의 무용태도와 또래 관계 및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1권, 제2호, pp.35-50, 2014.
- [21] 채지훈,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무용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1.
- [22] 김주영, *무용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 대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1.
- [23] 이지혜, *무용과 학생들의 전문화 수준이 무용태도 및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7.

- [24] 최윤선, “시장 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1호, pp.254-264, 2012.

저 자 소 개

최 윤 선(Youn-Sun Choi)

정회원



- 1986년 2월 :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 1990년 2월 : New York University 무용교육과(예술학 석사)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이학박사)
- 2003년 ~ 현재 :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 측정 평가